밀려남의 축복과 버티기의 저주

(사무엘상 28:1~25)

1. 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3.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니
5.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밀려남의 축복과 버티기의 저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밀려남의 축복과 버티기의 저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밀려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삶에서 내가 밀려나는 것이고, 버티기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삶에서 내가 버티는 것인데, 그러나 밀려나는 것이 축복이고 굳세게 잘 버티는 것이 저주로 귀결됩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적인 사건을 살펴봅니다. 나폴레옹이 영국에 대해 대륙과의 모든 교역을 단절시킴으로 영국을 고립상태에 빠뜨리기 위한 대륙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알렉산드리아 1세가 이것을 어기고 곡물을 수출하게 되자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무려 60만 대군으로 러시아로 진격하는데 나폴레옹의 입장이 아니라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 원정을 보자면 러시아 사람들은 일부러 계속 밀려났습니다. 60만 대군의 나폴레옹은 오직 3주 분량의 군사물자와 식량을 지니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나폴레옹 군을 맞이하여 일부러 밀려나면서 군수물자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불살랐습니다. 모스크바 인근까지 밀려나다가 처음으로 싸워서 러시아군이 5만 명이 죽고 프랑스군은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프랑스가 모스크바까지 진군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러시아군은 질서정연하게 밀려나기만 했습니다. 결국 모스크바에 들어오자 텅 빈 도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래 계획으로는 러시아의 황제가 항복문서를 들고 올 줄로 알았는데 어떤 협정에도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겨울을 맞이하게 되자 군수물자와 식량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일찍 찾아온 겨울을 피해 퇴각하는데 돌아가는 긴 여정 동안에 끊임없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4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은 포로로 잡히고 살아 돌아온 자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러시아가 넓은 것을 실감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려나기로 성공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독일 나치스가 프랑스에 쳐들어 왔을 때에 프랑스 시민들은 파리가 파괴될 것을 염려하여 저항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치스가 망할 때까지 파리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버티기로 이겨낸 유명한 싸움으로는 당태종이 대군을 맞이해서 싸운 안시성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부름 받은 선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삶으로부터 밀려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바로 저주이고 지옥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유명한 얘기들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하자 지하세계에서 올라온 가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납니다. 19~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라고 하는데 사울 왕에 대해 연민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울은 연거푸 ‘왕위가 끊어질 것이고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계속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와 아들들의 목숨을 잃게 되고 이스라엘이 패전을 경험하게 될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저주의 예언을 받게 되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이라고 하는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부수고 승기를 잡을 때에도 사울은 금식령을 내렸었습니다. 하루 밤낮을 먹지 못했다고 해서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사울은 버티고 버티다 마음의 기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은 각각 자기의 삶에 대해 밀려나기와 버티기를 하는 전형적인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내 삶에서 밀려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반대로 내 삶에서 버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저주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난국에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와있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 받은 자로 선민의식이 누구보다 강했던 다윗이 자기의 고향이고 앞으로 소명을 받아서 다스려야 할 선민 이스라엘로부터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밀려나게 된 이유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살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기름 부으신 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사울에게 대적할 수 없었기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고향과 나라로부터 밀려난 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모셔 들였다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내 삶을 아시고 생각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면, 나는 내 삶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약속해주는 축복입니다. 내 삶에서 밀려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대상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6: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라이벌로 재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살아 계신다.’는 것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돈보다 먼저 들어오신다면 돈 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게 되고 돈 버는 일의 내 생각은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다윗이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밀려난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밀려나서 이방 땅 블레셋에 가 있는 것처럼 내 삶에서 나의 주체적 인격은 밀려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면 건강에 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고, 건강에 대한 내 계획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취업 승진 결혼 성공 등 모든 방면에 대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로부터는 밀려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13: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사울의 상태는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 때문에 잃어버릴 것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대적하지 못한 채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는 자기의 왕위와 가정과 통치권이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버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와서 마음과 연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내가 내

삶에 대해 버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밀려나기 시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밀려납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라고 하시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은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왕위를 붙잡고 건강이나 집안의 안녕을 붙잡고 마음이 연합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며 버텨나갈 때에 하나님은 밀려나가십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의 중앙에 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취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재물이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에 들어와 있었고 그 마음의 결탁을 끊으려 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오늘의 저주로 '너와 네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할 것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진 뒤에야 러시아가 넓은 것을 실감했던 것처럼, 버팀으로 일관했던 사울은 마지막에 주어진 저주를 실감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자기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마음으로 결탁하고 버텼던 사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밀려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노예로 부릴 수 있고 관장할 수 있는 영의 세계와의 접속을 시도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달라'고 부탁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치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의 판도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은 신접한 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장 아래에 있는 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자가 감히 불러 낼 수 있는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도 무당들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을 불러내서 어머니의 목소리로 어머니와 나만이 알고 있는 기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마귀가 변장하고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은 자의 영을 현실로 불러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고인의 영을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과 마음이 연합하고 그 상태를 버티기 위해 영의 세계를 현세의 소원을 위해 불러들이려고 할 때에 자발적으로 악마와 손을 잡게 됩니다. 돈 자식 건강 취업 승진 등이 마음에 들어온 상태를 버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철야를 하든 40일 금식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것은 지옥으로 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

르는 것일 뿐임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죄’란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먼저 연합한 상태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 돈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접한 자가 악마의 영을 부르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결국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 사울에게는 마지막 저주의 선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 귀신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무당은 귀신을 통해 죽은 사람들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의 팩트를 이용해서 사무엘로 가장하고 삼촌으로 가장해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영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은 마음의 연합 상태를 버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그렇게 안 벌리면 마음에서 돈 벌리는 시도를 중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하는데도 몸이 망가질 때에는 마음을 건강에서 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버티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까? 사울이 버티고 버티다 최후에 저주의 말을 듣고서야 주저앉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실감을 하겠습니까?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실패하고 나서야 러시아의 넓음을 실감했던 것처럼, 버티기로 일관하던 인생을 최후에 가서야 저주인 것을 실감한다면 이런 바보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돈 벌려고 한두 번 시도해서 안 된다면 하나님 벌기 위해 작정하세요. 하나님을 벌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연합한 상태를 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은 하나님과만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며 죽을 때에 내 생각이 밀려나는데 이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자녀 돈 건강 사업의 문제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이 클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버티기를 끝내고 밀려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현장으로 데리고 가시든지 대통령을 삼으시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다윗이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삶을 버티는 것은 저주로 가는 것이고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연합하는 것은 이미 마음 안에 죄악의 뿌리가 내린 것이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밀려남의 축복을 누리시고 버티기의 저주를 능히 퇴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밀려남의 축복을 누리고 버티기의 저주를 발로 차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